마음 치유 돕는 '궁금한 콘서트'

도서출판 맑은소리, 매회 주제 정해 음악 선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힐링과 음악을 선물하는 특별한 콘서트가 부산서 열렸다.

월간 ·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대표 김윤희 · 이하 맑은소리)는 5월 19일 부산 남구 가람아트홀에서 '궁금한 콘서트'를 열고 관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맑은소리가 연중 기획 첫 번째 무대로 연 '궁금한 콘서트'는 치유의 의미를 담은 '치유놀이 콘서트'로 새롭게 기획됐다. 주제를 콘서트장에서 출연자가 직접 음악에 담아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형태로,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치유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 부드러운 감성으로 전달했다.

김윤희 대표는 "시대는 급속히 바뀌어 쉽고 흥미롭고 화려한 무엇인가를 더 빨리 좇아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 불교 역시 접점 역할을 담당할 방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콘서트는 일반인들에게는 양질의 문화를 전달해 앞으로 차별화된 불교를 전하는 전문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제는 '가족'으로 출연자인 가수 김창기와 뮤지션 비뮤티(홍범석)가

5월 19일 가람아트홀서 첫 선
'가족' 주제로 치유 무대 꾸며
김창기 · 비뮤티 · 선업 스님 출연
"차별화된 불교문화 전달 앞장"

무대에서 가족과 관련된 음악을 선사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비뮤티는 팔리어 'vimutti'로 해탈을 의미하며 연세대에서 성악 전공, 맨해튼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크로스오버 뮤지션이다. 2010년 1집 앨범인 'rest'로 데뷔했으며 대표곡으로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부처님오신날(The Lord Buddha's Birthday)'이 있다.

가수 김창기는 대표곡 '혜화동' '거리에서' '널 사랑하겠어' 등으로 일반인에게 친숙한 노래를 선보인 가수로 밴드 동물원에서 활동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특히 가수 김창기는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 정신과 전문가적 소견으로 가족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풀어주고 적절한 상담을 이어가듯 무대를 펼쳐 힐링을 선사했다.



맑은소리는 불자와 일반인을 포용할 수 있는 치유놀이 콘서트를 기획, 5월 19일 첫 무대를 선보였다. 궁금한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열린 행사에는 가수 김창기와 비뮤티, 선업 스님이 출연해 '가족'이란 주제를 음악에 담아 전달했다.

첫 무대를 장식한 비뮤티는 먼저 "한 달 전에 결혼을 했다"며 프랑스 에릭 사티(Erik Satie)의 곡 '쥬뜨부 (Je Te Veux)'에 가사를 붙인 '비 마의 브라이드(Be my bride)'를 불렀다. 이어 디어 파더(Dear Father)를 부르며 자신과 아버지 간의 아픔을 대중에게 담담히 전하기도 했다. 디어 파더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 1위인 푸치니의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O Mio Babbino Caro)'에 가사를 넣은 곡이다. 원곡은 딸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허락해 달라 부탁하는 것이지만 비뮤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무대를 장식한 가수 김창기는 '널 사랑하겠어' '엄마가 딸에게' 등 가족과 관련된 추억곡 및 대표곡을 부르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김창기는 비뮤티의 가족 사연을 들으며 "조화로운 가족을 위해서 부모들은 따뜻함과 일관성, 민감성 그리고 관계개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가족관계에서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거나 억압된 상황에 자신을 가두지 말 것"을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5월 첫 공연 특별 초대 손님으로 뫔행복치유센터 센터장 선업 스님이 참석했다. 선업 스님은 탐진치 삼독을 해결하기 위한 마음 다스리기를 설명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청중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뛰어난 기획을 선보인 콘서트였다고 입을 모았다.

박추자(부산 정관읍 · 74) 씨는 "출연진도 너무 좋았고 기획도 뛰어났다. 부산에서 이런 불교문화 공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란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를 찾고 힐링 메시지를 받아가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윤희 대표는 "앞으로 불교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공감을 얻는 콘셉트로 기획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메시지가 있는 '치유놀이 콘서트'로 발돋움하고자 하며 매회 주제를 갖고 궁금한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수월 스님 같은 푸른 납자 나오길"

의성 고운사, 사중 수행처 '수월암 선원' 준공식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는 5월 12일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수월암 선원 준공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강백 각성 스님을 비롯한 고운사 본 · 말사 스님, 김주수 의성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월암은 구한말 대표적 선지식인 수월 스님이 머문 암자다. 소실되고 암자터만 남아있었지만 2008년 고운사가 복원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수월암 아래쪽 터에 선원 공사를 시작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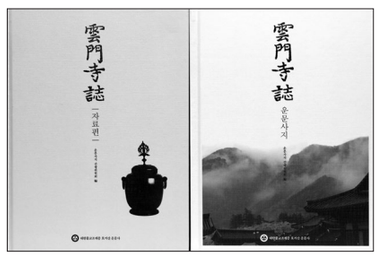
이날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앞으로 수월암에서 눈 푸른 스님들이 나오셔서 한국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신을 이끌고 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운사는 16일 고운사요양원에서 '제10회 한마음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운사 스님들을 비롯해 구계1리 · 구계2리 주민 100여 명, 요양원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동참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천년고찰 운문사 '모든 것' 담다

운문사, 5월 9일 〈운문사지〉 간행 봉정법회

역사 · 자료편 2권으로 구성
인물 · 가람 · 성보 등 '총망라'



천년고찰 운문사의 역사와 고승, 전각, 성보, 사료 등을 망라한 〈운문사지(雲門寺誌) · 사진〉가 대중에게 선보였다.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5월 9일 경내 대웅전에서 운문사의 1,500여년 역사를 담은 〈운문사지〉 간행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운문사지〉는 역사편과 자료편 2권으로 나눠 발간됐다. 총 860쪽 분량으로 운문사지간행위원회가 엮어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 4년여 걸쳐 완성됐다.

역사편에는 △사찰의 위치 △창건과 중창 역사 △운문사의 인물 △가람 규모 등이 상세히 정리됐다. 자료편에는 운문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사찰 신축 · 개축기, 성보들의 화기 · 명문들의 원문들이 수록됐다.

특히 새로 발간된 〈운문사지〉는 현대사회에 맞게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 1980년 발간된 〈운문사지〉는 목판본과 필사본의 한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운문사지〉는 기존 한문자료를 현대적으로 번역하고 근현대 비구니 승가교육기관으로서의 역사와 자료까지 묶어냈다.

이날 법회에서는 '기록의 불사'인 〈운문사지〉 발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격려사에서 "역사는 만드는 일과 기록물이 있다. 〈운문사지〉는 역사의 기록물로서 운문사의 역사가 물 흐르듯 후대에 이어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면서 발간에 많은 역할을 한 주지 진광 스님과 사중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운문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운문사지〉 발간을 부처님 전에 고했다. 일진 스님은 "1500년의 유구한 역사의 운문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적 자료를 집대성한 〈운문사지〉를 발간하게 됐다.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들은 세세생생 물러남이 없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은 봉정사에서 "〈운문사지〉의 발간은 그 어떤 불사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잊혀가는 승가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기록의 불사로,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후대의 눈 밝은 이가 보완하고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주지 진광 스님, 운문사지 편집국장 동우 스님을 비롯해 승가대학 학인스님, 이종수 성보문화재 연구실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미래 인재 젊은이들 무한 가능성 펼치길"

제13회 연등장학금 전달

연등장학재단 제13회 장학금 전달식이 5월 20일 경북 군위군 팔공산 제2석굴암 경내 비로전에서 봉행했다. 연등장학재단은 이날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생 · 대학생 20명을 선정해 총 1800만원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557명이며, 장학금 총액은 4억3800여만원이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제2석굴암 주지)은 "마음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가장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은 마음에 아름다운 각오의 그림을 그려 미래의 인재로서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나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